

# 코웨이, 포천공장에서 태양광 발전

## 45KWH 생산으로 공장 가동전력 일부 충당 ... 다양한 절감대책 지원

코웨이(대표 김동현)는 8월20일 포천공장의 태양광발전 설비 준공식을 작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국내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센터인 포천공장 지붕에 태양광 모듈 장비를 설치해 45KWH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일부 전력을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포천공장 태양광발전 시설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제품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웨이는 상품기획 단계부터 제조 전반에 걸친 자원 순환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원 재사용을 위해 지난 2006년 포천공장을 구축했다.

포천공장은 최근 3년간 리사이클링 및 리퍼브(Recycling·Refurbish)를 통해 250억원 이상의 자원 절감효과를 달성했다.

코웨이는 협력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부품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통합에너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6/28>